

실 습 소 감 문

학과	교육학과	실습과목	도덕·윤리	학번 이름	
----	------	------	-------	----------	--

북경한국국제학교에 온 지가 그저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실습소감문을 쓰려고 하니 교육실습을 했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 갔음을 느낀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16년 동안 학교를 다녔기에 학교라는 공간이 익숙할 줄 알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벗어나 교사이면서 학생인 입장에서 바라보니 그동안 미처보지 못했던 다른 모습의 학교를 교육실습을 하면서 볼 수 있었다. 전 시간의 수업분위기가 이번 시간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계성도 발견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학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다.

북경한국국제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더 주변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처음부터 교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민들의 기금을 모아 세워진 학교여서이기도 하겠지만, 부족한 학습공간을 위해서 별관도 사고, 학교 외에 따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한국에 비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보충학습이 강화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경우,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다. 주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다들 걱정하였는데 재외국민 학생이라서 가질 수 있는 학생들만의 장점도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몇몇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니 아무리 사춘기라 독립할 나이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랑을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 밖에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점도 북경한국국제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는지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자주 마주칠 수 있다 보니깐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는 한 반을 하나의 학습목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끌어 간다는 점이 참 매력 있다고 생각했다.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나의 생각대로 따라와 줄 때 기분은 정말 흐뭇하다. 어린 학생들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생각도 비슷할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쏟아져 나올 때가 많아 수업이 예측한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때도 있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내 수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점도 좋았다. 하지만 수업준비에 있어서 현지 인터넷 사정이 느리고 구글이나 유튜브의 경우에는 우회해서 접속해야 해서 더 느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생각을 하게 할 만한 좋은 자료를 얻기가 너무 힘들었다.

다른 교과에 비해서 도덕교과 수업은 수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담당 반 아이들의 장점과 소원쓰기를 엿보면서 어릴 때 내가 했던 생각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깊은 학생을 보면서 어른이 된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비슷한 상처를 가졌음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처받은 일들이 어른이 되면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나 빼놓아진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좀 더 먼저 삶을 사는 입장에서 그 학생의 마음을 열고 싶었는데, 시간이 더 길게 필요한 일이라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7학년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탄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신나게 주워서 평소에 사고 싶은 걸 사겠지만, 잃어버린 돈은 주인이 있는 것이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당차게 외치는 모습이 참 예뻐다.

교육실습을 오기 전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사범대학의 수업에서도 수업모형을 주제로 수업시연만 해보았는데, 막상 학교현장에 오니까 학습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생활지도도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생활지도로 바른 마음과 바른 습관이 형성되어야 좋은 수업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실습을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추억을 쌓고 가는데,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도와주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환영해 주시고 고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